

2002년 중국투자 1997년 이후 최대

1-6월 544건에 3억2000만달러 ... 미국 추월에 IMF 이후 최대금액

2002년 국내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7억달러를 넘어서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KOTRA는 8월20일 [WTO 가입이후 중국투자 동향 비교] 보고서에서 2002년 상반기 국내기업의 중국투자가 544건, 3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3%(금액기준) 늘었다고 밝혔다.

투자건수와 투자액 모두에서 미국투자 216건, 1억6000만달러를 크게 앞선 것이다. 특히, 중국투자가 투자액 면에서 미국투자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KOTRA는 중국투자가 2002년 연간으로 7억달러에 이르면서 7억1600만달러를 보인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중국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투자액면에서는 제조업이 84.4%인 2억7000만달러(462건), 서비스업이 7.5%인 2400만달러(71건)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아직 절대금액에서 제조업에 크게 뒤지고 있지만 상반기에 건수(26.7%)와 금액(40.7%)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조업 투자는 건수에서는 8.9% 증가했으나 투자액은 오히려 2.1% 감소했다.

투자지역별로는 광둥(廣東), 푸젠(福建)성 등 중국 화남지역에 대한 투자액이 4배 증가했으며 상하이(上海) 등 화동지역, 텐진(天津)을 제외한 환발해지역, 동북 3성 지역도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KOTRA는 종래의 동북 3성과 산둥(山東)성 편중현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홍콩, 미국, 일본, 타이완 등 경쟁국의 중국투자를 분석한 결과 최근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제3국 수출기지로 중국을 활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을 직접 겨냥하는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OTRA는 특히 내수시장 공략이 유리한 창장(長江) 삼각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9/ 02 >